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민관합동 낙석위험지구 점검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윤명수)는 '해빙기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낙석위험지구 및 낙석제거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해빙기 낙석으로 인한 탐방객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남원시청, 지리산민간자연휴양림 등과 합동으로 급경사지 및 낙석위험지구 점검을 통해 안전한 탐방로를 확보하고 낙석제거작업을 실시했다.

심용식 재난안전과장은 "해빙기 국립공원 탐방 시에는 안전한 산행을 위해 낙석위험 지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급경사지나 암반지대를 지날 때에는 신속하게 통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화재현장 추락대비 에어매트 전개훈련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10일 고층건축물 화재현장에서 안전한 인명구조와 추락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에어매트(공기안전매트) 전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에어매트는 고층건축물 화재 발생 시 피난계단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건물 밖으로 긴급히 뛰어내려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매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명구조 장비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에어매트 설치와 조작방법 습득으로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하게 구조자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 진행됐다.

박덕규 서장은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농협 부녀회 총회 및 임원선출

김제농협(이정용 조합장)은 지난 9일 부녀회 총회를 열고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전임회장인 김옥자 회장이 만장일치 연임 재추대 됐으며 부회장 박승민, 총무 이요민, 감사 정미향이 선출됐고 신봉동대표 장삼이, 교월동대표 유귀자, 김산동대표 서집남, 요촌동대표 한순조, 죽산면대표 정미자, 부량면대표 김광순 등 6개 동면 대표부녀회장이 선출돼 111명 부녀회장을 대표하는 임원구성을 마쳤다. 김제농협부녀회는 농협사업발전과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며 2년간의 임기로 활동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명품 진안 흑삼 개발 위해 연구할 것”

진안흑삼연구소 검사인증팀, 흑삼 제조 표준화 연구 기반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약 2개월 이상 저온 저장 인삼을 흑삼으로 제조시 벤조피렌 약 20배 증가 규명



오효빈 연구원

진안흑삼연구소(박충범 소장)는 최근 흑삼 제조 표준화 연구 기반으로 투고한 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인 'Metabolites' 온라인 판에 지난달 10일 게재 승인되었다고 11일 밝혔다.

논문이 실린 Metabolites(IF:4.097)는 대사체학을 다루며 생명공학 및 의학분야에 관련된 대사의 모든 분자 측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SCI(E)급 국제학술지다.

논문 제목은 '저온저장한 인삼을 사용한 흑삼제조 특성 연구'로 흑삼 제조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저온저장인삼을 흑삼으로 제조 하였을 때 과량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원료삼 선택에 대

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수확 후 약 2개월 이상 저온 저장된 인삼을 흑삼으로 제조하였을 때 벤조피렌이 약 2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향후 진안흑삼제조에 유해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흑삼연구소 검사인증팀 오효빈 주임연구원은 "이번 논문발표를 통해 안전한 흑삼 제조로 소비자의 인식 개선과 고품질의 흑삼 제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 더 명품 진안 흑삼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충범 연구소장은 "지난해 2020년 식품 잔류농약검사기관 지정과 금회 논문 게재로 연구소의 위상을 높이고 향후 흑삼의 진안 브랜드 확립을 위해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경찰, 전화금융사기 예방 집중 홍보

무주경찰서(서장 빈중석) 생활안전계는 최근 날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신종 수법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무주경찰서는 최근 기존 대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금융기관 앱 설치 유도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내 주요지점에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 하였고, 특히, 피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근로계층·중년층·노년층 등에 대한 계층별 타겟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전화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예전 전화금융사기는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뻔한 수법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기범들의 수법이 IT(정보통신기술)를 통하여 날로 지능화 하고 있어 순간 방심하면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수법이 교묘하게 진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관내 목조문화재 안전컨설팅 실시

남원소방서는 지난 10일 박덕규 서장을 중심으로,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목조문화재의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일환의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안전컨설팅은 남원관한루·선원사·몽산재·대복사를 방문해 ▲문화재 주변 무단소각행위 단속 및 화재취약요인 제거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 및 소화기 등 설치 안내 ▲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통한 소방·방재시설 100% 가동유지 등이다.

특히 목조문화재 중 보물 281호 관한루의 소방시설 점검을 위해 방수총 3대, 옥외소화전 2대, 자동화재 속도설비, 대형소화기, 불꽃감지기 등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박덕규 서장은 "소방관계자는 소방시설 사용법 숙지를 통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고 화재예방에 노력해 주



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 협약 체결

(사)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기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4년에 설립된 (사)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석면해체제거 모니터링 사업을 위탁 받아 추진해 온 단체다. 2020년에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군수에) 3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 무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뜻을 모으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사)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 신병철 회장은 "협회 설립 이후 지부를 개소하고 석면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내며 성장을 꾸준히 이뤄 나가고 있다"라며 "사회공헌을 함께 하는 단체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장학금 기탁 협약을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 인재육성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2020년부터 대학생들의 학비부담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1학기 100만 원 장학금 지원을 지속 추진해 무주가 키운 인재가 무주를 키우게 되는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아만테로마씨, 라이온스 봉사대상 수상

남원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아만테로마(37)씨가 11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주관의 '2021 라이온스 봉사대상'에서 사회부문(다문화가정)에 선정되며 5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아만테로마씨는 지난 2011년부터 결혼이주민의 소풍참구의 통(번)역사로 일하면서 다문화가족이 남원시에 정착하는 데 기여한 점이 공로로 인정받았다.

특히 아만테로마씨는 지난 10년간 남원소방서에서 소방안전 도우미와 전북지방경찰청 공공안전정보 의사계에서 민간인 통역요원으로도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또한 필리핀 자조모임을 구성, 농촌 일손 돕기는 물론 노인시설에 방문해 마사지, 말벗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지난해 남원에 역대급 수해가 발생하자, 피해 이웃의 주거환경정비, 농지복구 봉사활동에도 적극 동참해 복귀지원에 힘쓴 바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경찰, 주민불안 해소 탄력순찰 현장컨설팅

김제경찰서(서장 김상형)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지역관서별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맞춤형 탄력순찰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탄력순찰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한 시책으로, 주요 골자는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장소 순찰하여 안전감 회복과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신청방법은 순찰신문고 웹페이지 활용,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주민민원형 탄력순찰의 취지와 2020년도 경찰청 주관 체감안전도 설문 결과 응답자 다수가 '순찰강화'를 요구한 점을 바탕으로 내부 직원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올해부터 확대 시행중인 '지역안전순찰'과 연계해 순찰지점 확대 및 지역 내 범죄취약지에 대한 개선 등 문제해결 중심의 예방적 순찰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자리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